남원시 도통동 부림석재, 저소득층에 쌀 100포 전달

남원시 도통동은 관내 부림석재(대표 정형국)에서 13일 추석을 맞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100포(환가액 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다고 밝혔다.

부림석재는 8년째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현물 및 현금을 기탁을 하고있는 업체로 동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방문 가구와 저소득계층에 전달 할 예정이다.

정형국 대표는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하는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외롭게 다가올 수 있다. 작은 보탬이 이웃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박경순 2통장은 농사지은 백미 20kg 10포를 기부했다.

김윤자 도통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도통동을 위해 기부해 주신 부림석재에 감사드린다. 기부자의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리고, 행정에서도 촘촘한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청렴누리문화제 개최

전북대 주관 11개 공공기관 참여해 청렴 퍼포먼스 등 진행

'제8회 전북 청렴누리문화제'가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렸다.

전북 청렴누리문화제는 전북지역 공공기관 간 반부패,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세상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특강, 청렴 관련 연극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감사원에서 재직했던 유종남 강사가 반부패·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행동강령에 대해 강연을 펼쳤고, 이어 갑질 예방과 공정채용 등 조직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통해 청렴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청렴누리문화제의 주관을 맡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있는 기관들이 솔선해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지역 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의 문화제에 전북대학교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틈새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개인의 비위와 부패가 우리 조직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렴은 우리 모두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청렴누리문화제의 주최기관인 전북청렴클러스터협의회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도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북도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이재 · 이병철 도의원, 마약 근절 'NO EXIT' 동참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전주4)과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7)이 13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마약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의 지명을 받은 김이재 의원과 이병철 의원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이재 의원은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강력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마약청정지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마약류사범 수가 2017년 150명에서 2022년 274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한 번 이라도 접하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 마약으로부터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약퇴치 운동에 전 도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마약 근절 릴레이 주자로 김이재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과 김성수 의원(고창1)을 지명했고, 이병철 의원은 전북 농협본부 박병철 노조위원장을 지명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포상금 전액 장학금 기부

무주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8백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성금은 2022년 기초생활 보장 분야 사업평가에서 무주군이 우수 지자체(보건복지부장관 표창)로 선정이 되면서 받은 포상금 8백만 원 전액으로, 무주군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발굴 · 시상하는 이번 평가에서 제도 운영실적 및 업무협조 노력도 등 모든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노력도를 비롯해 △행복e음 변동 조사 처리현황, △긴급복지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관리 집행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 지원의 내실화 기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무주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져서 받은 인정을 다시 군민을 위해 쓰게 돼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1기 민주평통 진안협의회 출범식… 강용희 신임 회장 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는 13일 전춘성 군수, 사회단체장,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강당에서 제21기 강용희 신임회장 취임과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21기 구성현황 보고, 최경호 전임 협의회장 이임사 및 강용희 신임 협의회장 취임사와 기 전달,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강용희 신임 협의회장은 "제16기, 17기에 이어 21기 협의회장직을 맡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군민간의 화합과 소통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문위원으로서의 덕망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여러분 모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행기관장인 전춘성 군수는 "현재 남북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21기 협의회도 평화통일과 지역 화합을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1기 민주평통 진안군 자문위원은 총 37명으로 남성 23명, 여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수현 우석대 동문, 전태일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

우석대학교 조수현(문예창작학과 21년 졸업) 동문이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1회 전태일문학상 소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당선작 '개미인력 남쁘로모따'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주인공 '항제'가 네팔에서 온 노동자 '남쁘로모따'에게 스포츠 도박을 알려주며 '남쁘로모따'가 점점 타락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수현 동문은 "돈과 노동에 관한 관계와 욕망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며 "빠듯한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신 학과장은 "문학의 시대적 소임을 강조하고, 습작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해 온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재학생 및 졸업생의 문단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 농협창립 62주년 공로상 수상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이 지난 9월 8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례조회에서 농협창립 62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갑선 조합장은 2015년부터 지난 8년간 조합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원로조합원 행복나누미 반찬봉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필품 전달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복지를 위해 힘써왔으며 관내 하나로마트 3개소에 대한 신축 및 리모델링, 상하지점 및 해리농협 본점 종합청사신축 등 해리농협이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편의성을 완비한 고창군 서부권의 선도농협으로 도약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왔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천일염 가공사업소를 중심으로 고창 천일염 '천만금' 가공판매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명품브랜드화, 건고추, 고구마, 양파 계약재배사업 추진 등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지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였다.

김갑선 조합장은 수상 소감으로 "앞으로도 조합발전에 헌신함은 물론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조합원과 고객의 실익증진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남원시는 13일 시청 강당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 조직으로, 현재 23개 읍면동 339명의 위원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참여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은 김헌 웰듀 컨설팅 대표를 초청,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역할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민관협력 방법과 이론뿐 아니라 실제 사례와 타 지역 우수사례 소개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이끌었다.

이아영 희망복지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어 지역의 보호체계가 보다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유미 청하면장, 경로당 순회방문 소통행정 펼쳐

김제시 청하면 양유미 면장은 관내 30개소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여 부임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살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경로당 방문은 무더위 여름을 지나 초가을 늦더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동향을 파악하고 이용불편사항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통행정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을 방문한 양유미 면장님에게 감사하다."며 "노인복지와 청하면의 발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반가움을 전했다.

이에 양유미 청하면장은 "반갑게 맞이주는 어르신들께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시 죽항동, 주민 향한 따뜻한 손길 '훈훈'

남원시 죽항동(동장 허인선)에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훈훈하게 하고 있다.

동 발전협의회(회장 김진수)와 청년회에서 각각 라면 23박스(50만원 상당)와 13박스(30만원 상당), 이마트24(쌍교점) 라면 13박스(30만원 상당), 익명의 지역 독지가가 라면 16박스(3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허인선 죽항동장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홀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꼭 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협회 남원지부, 추석 맞아 돼지고기 기탁

남원시는 대한한돈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소시호)에서 추석 명절맞이 이웃돕기를 위해 돼지고기 90kg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돈협회는 남원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소외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돼지고기를 전달해 왔다.

소시호 지부장은 "희망을 잃지 않고 명절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으며,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잊지 않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는 대한한돈협회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기탁된 돼지고기는 관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되어 취약계층 9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대비 합동 현장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대비해 13일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경찰서는 앞서 지난 5일 축제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고, 행사장 주요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는 행사 1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장수경찰서, 장수군청 등 축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메인부대 인파·동선관리 계획과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구조·구급통로 확보여부에 대한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정덕교 서장은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